

PO 진출못한 구단 사령탑 희비 엇갈려

(프로야구)

kt 위즈, 조범현 감독과 재계약 포기 SK 와이번스, 김용희 감독과 결별 수순

'가을 야구' 구경꾼 신세로 전락한 프로야구 각 구단 사령탑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 막내구단 kt 위즈는 조범현 감독과 재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kt 초대 감독으로 부임한 조 감독의 계약기간은 올해가 마지막이었다.

kt 구단은 성적 부진과 팀 내 사기 사고의 책임을 물어 조 감독과 이별을 선택했다.

SK 와이번스도 김용희 감독과 결별 수순을 밟았다. 2014년 SK와 2년 계약을 맺은 김 감독은 부임 첫 해 5위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에 참가했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조기 탈락했다. 올 시즌에는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5강에 들지 못한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의 사령탑들도 좌불안석이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올 시즌 계약 기간이 만료된다. 한화 김성근 감독과 롯데 조원우 감독의 계약기간은 1년이 남아 있다.

삼성은 올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창단 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삼성은 류중일 감독과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삼성의 지휘봉을 잡은 류 감독은 부임 후 페넌트레이스 5연패, 통합 4연패를 달성했다.

올해 성적이 부진했지만 이를 오로지 감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류 감독은 "감독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게 감독의 역할이다. 계약 여부는 그 다음"이라며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좌불안석이다. 2년전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한화 지휘봉을 잡았다.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정근우, 이용규 등 대형 FA(자유계약)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2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선수 후사 논란이 커지며 김 감독을 성토했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급기야 일부 한화 팬들은 김 감독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화 구단은 고민중이다. 한화 구단은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성근 감독 체제가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는 설부른 판단이다"는 입장이다.

사령탑 부임 첫 시즌 마무리 한 롯데 조원우 감독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조 감독은 올 시즌 8위로 마감하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몇몇 이름값 있는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컸고 선수 관리에 실패하면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올 시즌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신만의 색깔도 보여주지 못했다.



'가을 야구' 구경꾼 신세로 전락한 프로야구 각 구단 사령탑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막내구단 kt 위즈는 조범현 감독과 재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t 위즈의 조범현 감독

이런 모습에 일부 팬들 사이에는 감독 경질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롯데는 조 감독에 대해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롯데 구단 관계자는 "현재 구단은 감독 교체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승전보



진안군청 역도팀 "체전을 휩쓸었다"

진안군 소속 역도팀이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한국주니어신기록까지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다. 이번 대회에서 유동주 선수는 85kg급에 출전해 인상(161kg), 용상(202kg), 합계(363kg)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전라북도에서 첫 금메달 3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팀의 말형 김광훈 선수는 77kg급에 출전해 인상(151kg) 3위, 용상(190kg) 1위, 합계(341kg) 1위를 차지해 금메달 2,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유재식 선수는 69kg급 인상에서 146kg을 들어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이룬 배경에는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에 입단 후 최병찬 감독의 적절한 지도가 큰 힘이 되었으며 철저한 자기관리 및 피나는 훈련은 물론이고 홍삼특구의 고장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진안홍삼을 꾸준히 섭취하며 체력을 관리해 온 결과라는 평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청 복싱팀 신동명, 56kg 밴텀급 우승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 소속 신동명 선수가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남원시청 복싱팀(감독 강형성)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충청남도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해, 56kg 밴텀급 신동명 선수가 당당히 금메달을 획득,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명예를 드높였다.

남원 복싱팀 소속으로 2012년~2013년 전국체전 2연패, 국가대표로 활동한 신동명 선수는 서귀포 시청 소속으로(2014~2015)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는 큰 부진을 겪었지만, 올해 남원시청으로 돌아와 다시금 전국체전을 이룬 큰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남원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수 고등부에서 이승훈(용성고) 금메달, 김진영(삼원고) 동메달을 획득해 지리산권 스포츠 중심도시의 면모를 과시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부, 금 4 · 은 2 · 동 2개 획득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선전했다.

육상 여자일반부 800m와 1500m에 출전한 익산시청 신소광 선수는 두 경기 모두 1위로 골인하여 금메달 2개를 목에 걸며 국내 최강임을 확인했고, 팬싱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는 김지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나루 선수는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59m 02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전국체전 10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시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해 익산의 명예를 드높인 선수와 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0월13일 시청 홍보관에서 메달 전수식과 함께 포상금 전달식을 가졌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간 훌륭한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건강체육도시 익산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앞서 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철 기자

전북현대, 제주와 상위스플릿 첫 경기

내일 '권순태Day' 지정 특별한 이벤트 준비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내일 토요일 오후3시 제주유나이티드와 상위 스플릿 라운드 첫 경기를 갖는다.

33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전북은 18승 15무 0패 승점 10점으로 우승이 확실시 됐지만 최근 심판 매수 사건으로 인해 승점 9점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으며 2위 FC서울(승점57점)과 승점이 3점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순위 상위 팀인 전북, 서울, 제주, 울산, 전남, 상주 등 강팀이 속해있는 상위스플릿에서 최선의 집결력을 유지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에게 이번 홈에서 펼쳐지는 첫 경기의 결과는 시즌 마무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FC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을 큰 점수차로 이기며 결승진출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이번경기는 국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더블을 달성하는데 선수단 분위기가전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편, 전북은 이날 경기를 '권순태 Day'로 지정하고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한다. 권순태는 2006년 프로 데뷔 이후 11년째(상무 포함) 최철순과 함께 전북의 '원클럽 맨'으로서 활약하며 K리그 296경기를 뒀 베테랑 골키퍼이다. 전북은 '권순태 Day'를 기념해 선수 유니폼을 디자인한 '권순태 배지' 1만개를 각 게이트에서 입장하는 팬들에게 선물한다.

전북은 제주와의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스플릿 라운드 5경기 모두를 승리하

며 리그 3연패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경기 선수 데이의 주인공인 권순태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남은 경기에 무실점 전승을 해서 리그 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건 경기장에서 외쳐주는 함성이다. 많은 팬들이 전주성에 찾아주시길 부탁드린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런 모습에 일부 팬들 사이에는 감독 경질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롯데는 조 감독에 대해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